

명원(茗園)의 주련(柱聯)과 중국의 대련(對聯)

1. 명원에 걸린 주련의 번역 및 그 출처

(1) 바깥채(입구 쪽에서) 정면 우측

竹分翠影侵書榻(죽분취영침서탁) 대나무 푸른 그림자 보내어 책상에 드리우고
菊送清香滿客衣(국송청향만객의) 국화는 손님 옷 가득 맑은 향기 보낸다
落葉亦能生氣勢(낙엽역능생기세) 낙엽도 능히 기운을 낼 수 있어서
一庭風雨自飛飛(일정풍우자비비) 뜨락 가득 비바람에 스스로 날아다닌다
권우(權遇: 1363-1419)의 <추일(秋日)>

(2) 바깥채(입구 쪽에서) 우측면

月白雪白天地白(월백설백천지백) 달빛 희고 눈빛도 희며 천지가 모두 희고
山深水深意氣深(산심수심의기심) 산도 깊고 물도 깊고 뜻도 깊네

水作銀杆春絕壁(수작은간춘절벽) 물은 봄 절벽에 은 저울대요
雲爲玉尺廣青山(운위옥척광청산) 구름은 넓은 청산에 옥으로 만든 자일레라
月白雪白天地白(월백설백천지백) 달빛은 희고 눈빛도 희며 천지가 모두 희고
山深水深客愁深(산심수심객수심) 산도 깊고 물도 깊고 나그네 근심 또한 깊도다
김병연(金炳淵, 김삿갓:1807-1863)

(3) 바깥채(입구 쪽에서) 좌단 기둥 양면

白雲雲裏青山重(백운운리청산중) 흰 구름 속에 푸른 산 첩첩하고
靑山山中白雲多(청산산중백운다) 푸른 산속에 흰 구름도 많구나
日與雲山長作伴(일여운산장작반) 날마다 구름 낀 산과 벗하나니
安身無處不爲家(안신무처불위가) 몸 편히 지내니 집 아닌 곳이 없어라
고려(高麗) 태고 보우(太古 普愚:1301~1382) 의 <운산(雲山)>

(4) 바깥채(입구 쪽에서) 좌측면(a)

巖扉寂寂柳陰陰(암비적적류음음) 바위 문은 적막하고 버드나무 그늘 어둑어둑한데
醉倚軒窓午夢深(취의헌창오몽심) 취하여 서재 창가에 기대니 낮 꿈이 깊네
何處東風吹送雨(하처동풍취송우) 어디서 봄바람은 비를 불어 보내오나
一聲山鳥萬花心(일성산조만화심) 산새의 한 울음에 온갖 꽃이 피네
유한재(俞漢宰: 1757~1817) <춘일수각(春日睡覺)>

(5) 바깥채(입구 쪽에서) 좌측면(b)

滿庭月色無烟燭(만정월색무연촉) 뜨락 가득 달빛은 연기 없는 등불이요
入座山光不速賓(입좌산광불속빈) 자리에 드는 산빛은 청하지 않은 손님일세
更有松絃彈譜外(경유송현탄보외) 더욱이 소나무는 악보 밖의 가락을 연주하니
只堪珍重未傳人(지감진중미전인) 보배로이 여길 수 있을 뿐 남에겐 전하지 못하네
최항(崔沆:?-1024) <절구(絶句)> cf 최충(崔沖:984-1068)

(6)본채 정면 우측

梅經寒苦發清香(매경한고발청향)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고서 맑은 향기를 발하고,
人逢艱難顯氣節(인봉간난현기절)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야 절개를 드러낸다

(7) 본채 정면 좌측

長風破浪會有時(장풍파랑회유시) 큰 바람 타고 물결 헤쳐 나갈 때가 있을 것이니
直掛雲帆濟滄海(직괘운범제창해) 구름 같은 돛 똑바로 세우고 큰 바다 건넌다
이백(李白:701-762) <행로난(行路難)>의 두 구

(8) 녹약정(綠若亭)의 주련

無限松風韻不齊	솔바람 끝없이 부니 운을 없는 가락이라	- 서산대사(西山大師)
錄若亭下水如天	녹약정 아래 물은 하늘같네	
夕陽山色滿空潭	석양 받아 비친 산색 연못에 가득하고	- 정봉(鄭鳳)
一潭明月釣無痕	연못 속의 밝은 달은 낚아도 자취 없네	- 송(宋) 관사복(管師復)

참고

1. 對聯의 구조와 특성(한자와 중국어의 특성 그리고 중국적 세계관의 결정체)

(1)楹聯

聖府 :與國咸休安富尊榮公府第,
同天並老文章道德聖人家

(2)對聯

墨, 清 鹹豐帝
泉. (一言)

嶽竣，
湘清。 (二言) 張栻(1133年-1180年)

黃鶴舞，
白雲飛。 (三言) -(舊)黃鶴樓聯

紅梅映日
白雪迎春 (四言)

風定花猶落(梁 謝貞)，
鳥鳴山更幽(梁 王籍)。 (五言) 王安石(1021－1086)集句

四面荷花三面柳，
一城山色半城湖。 (七言) 劉鳳誥(1761～1830)，

但願和合百千萬歲，
爲歌窈窕一二三章。 (八言) 吳恭亨(1857-1937)

山山水水，處處明明秀秀；
晴晴雨雨，時時好好奇奇。 (複句 十言) --西湖中山公園一亭聯

夏布糊窗，個個孔明諸格亮。
幽香滿院，鬱鬱晚華梅蘭芳。 (複句 十一言) 沈明珩(紀昀의 妾)

玉帝行兵，風刀雨劍，雲旗雷鼓天作陣； 乾隆(1711－1799)
龍王宴客，日燈月燭，山肴海酒地爲盤。 (三複句 十五言) 紀昀(1724-1805)

提錫壺，遊西湖，錫壺掉西湖，惜乎錫壺；
尋進士，遇近視，近視中進士，盡是近視。 (四複句 十五言)

四面荷花三面柳(사면하화삼면류), 사면이 연꽃이며 삼면이 버드나무요
一城山色半城湖(일성산색반성호). 온 성이 산 빛이요 그 성의 반이 호수로다
유봉고(劉鳳誥:?-1830)

與國咸休，安富尊榮公府第(여국함휴, 안부존영공부제), 나라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제후의 집

同天並老, 文章道德聖人家(동천병로, 문장도덕성인가). 하늘과 함께 늙어가는 문장과
 도덕이 뛰어난 성인의 집안
 이동양(李東陽:1447-1516) 또는 기윤(紀昀:1724-1805)

翹首遐觀, 賞翠滴紅燃, 消盡一天倦意(교수하관, 상취적흥연, 소진일천권의); 고개 들어
 멀리 바라보며 푸른 빛 뚝뚝 떨어지고 붉은 빛 불타는 것을 감상하니 하루의 피곤함을 다
 없애고,
 臨亭小憩, 聽鶯歌燕舞, 頻添幾許詩情(임정소계, 청앵가연무, 빈첨기허시정). 정자에서 잠
 시 쉬며 피꼬리 노래하고 제비 춤추는 것을 들으니 자주 얼마간의 시정이 더해지네.
 하승천(夏勝千:?)

(2) 상·하구 같은 문장 구조로 같은 위치에 같은 품사, 그리고 같은 부류의 다른 뜻(상반될
 수록 좋음: 無山得似武山好, (何葉能如荷葉圓 or 何水能如河水清)

四	面	荷	花	三	面	柳
一	城	山	色	半	城	湖
수사	양사(명사)	명사	명사	수사	양사(명사)	명사

(3) 상·하구 같은 위치에 상반되는 平仄(특히 짝수 번째 글자), 그리고 측기평락(仄起平落)

四(측)面(측)荷(평)花(평)三(평)面(측)柳(측),
 一(측)城(평)山(평)色(측)半(측)城(평)湖(평).

(4) 영련(楹聯)인 경우 횡피(橫披)를 첨부함: 위 공부(孔府)의 경우 ‘성부(聖府)’라는 횡피가
 걸려 있음.

(5) 두 사람이 한 구씩 읊기도 함

綠水本無情, 因風皺面(녹수본무정, 인풍추면); 푸른 물은 본래 감정이 없지만 바람 때문
 에 얼굴을 찌푸리고, - 심의보의 스승

靑山原不老, 爲雪白頭(청산원불로, 위설백두). 푸른 산도 원래 늙지 않지만 눈 때문에
 머리가 희네. - 송(宋) 심의보(沈義甫)

2. 한국의 柱聯으로 해석된 중국의 楹聯

한국의 사찰이나 정자에서 한문 문구가 세로로 줄줄이 붙어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
 데, 이것을 柱聯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에서는 이것을 楹聯이라고 한다. ‘柱聯’의 ‘柱’나 ‘楹聯’의 ‘楹’은 모두 건물의 ‘기둥’이라는
 말로서 서로 같은 뜻의 다른 글자들이다. 그리고 ‘聯’은 운문을 구성하는 단위요소이므로,
 그 뜻을 살펴보자면 柱聯이나 楹聯은 모두 ‘기둥에 붙여 놓은 운문적 성격의 글귀’라는 뜻

이 된다. 그래서 기둥에 붙어 있는 글귀라는 걸로 드러나는 모습은 柱聯이나 楹聯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柱聯이나 楹聯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글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문경의 曦陽山 鳳巖寺는 한국 최고의 선종 수련 도량으로서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곳의 대웅보전 정면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써어 있다.



佛身普遍十方中(불신보편十方중),	부처님 몸은 이 우주에 두루 계시는데,
三世如來一切同(삼세여래일체동).	삼세의 부처님이 모두 같으시네.
廣大願雲恒不盡(광대원운항부진),	넓고 큰 원력의 구름 항상 다함이 없고,
汪洋覺海渺難窮(왕양각해묘난궁).	드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하여 끝을 보기 어렵네.
威光遍照十方中(위광편조시방중),	(부처님의) 위광은 온 우주에 두루 비치고,
月印千江一體同(월인천강일체동).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쳐도 모두가 같은 것일세.
四智圓明諸聖士(사지원명제성사),	네 가지 지혜가 두루 밝은 여러 성스러운 사람들이,
眞臨法會利群生(분임법회이군생).	법회에 임하시니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시네.

편의상 한글 발음도 부기하고 번역문도 붙였지만, 실제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자어로 된 글귀들만 써어 있다. 이 글귀들은 7언 8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7언 4구의 시 두 수의 연작시로도 볼만하다.¹⁾ 그래서 이 주련은 4구 또는 8구로써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나타내는 시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사찰에서도 봉암사의 대웅보전과 유사한 모습의 대웅보전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사진은 중국 江蘇省의 鎮江市의 金山寺에 있는 대웅보전이다.

1) 전남 장흥군에 있는 천관사의 대웅보전에는 앞의 4구만 주련으로 써어 있다.



봉암사 대웅보전의 전면 기둥은 8개라서 8개의 글귀가 씌어 있었지만, 이 금산사의 대웅보전의 전면 기둥은 6개라서 모두 여섯 개의 글귀가 붙어 있어서 글귀의 숫자는 다르지만 그 형식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글을 읽는 순서는 사뭇 다르다. 봉암사의 대웅보전의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읽어나갔지만, 금산사의 것은 오른쪽 세 번째, 왼쪽 세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첫 번째와 왼쪽 첫 번째의 순서로 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글귀들을 순서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氣接鴻蒙中流開遠勢(기접홍몽중류개원세),
한
山浮杳靄一柱倚晴空(산부묘애일주의청궁).

기운이 태고시대에 이어지는데 강 가운데에 원대
형세를 열었고,
산에는 아득한 노을이 떠도는데 기둥 하나가 맑은
하늘에 기대고 있네.

潮湧西津不斷無風傳塔語(조용서진부단무풍전탑어), 물결은 서쪽 나루에서 용솟음치고 끊이지 않
니,
고; 바람이 없어도 불탑에 쓰인 이야기 전해주

山蟠北固遙分晴籟散爐煙(산반배고요분청뢰산노연). 산은 북고산까지 서려서 멀리서 나누어지니, 맑
은 소리는 향로의 연기 흩어버리네.

山中鳥語花香活潑天機參妙諦(산중조어화향활발천기참묘제), 산 속에는 새 지저귀고 꽃 향기로우니,
활발한 자연의 오묘함에 신묘한 진리를 탐구하
고;

殿外風光霽月大千景象悟禪心(전외풍광제월대천경상오선심). 전각 밖의 풍광이 비껴 났을 때 달 같으니,
세상의 모습이 禪의 마음을 깨닫게 하네.

이렇게 보면 오른쪽 셋째와 왼쪽 셋째, 오른쪽 둘째와 왼쪽 둘째, 오른쪽 첫와 왼쪽 첫째는 각기 글자 수가 같아서 건물 중앙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따져보면 짝지어진 두 구는 같은 위치의 글자의 품사가 같거나 유사하

고, 짝수번째의 글자는 각기 평측이 반대가 된다. 그리고 짝을 지은 것 중에 오른쪽 것이 먼저라서 上聯 또는 出句라고 하고, 왼쪽 것은 뒤라서 下聯 또는 對句라고 하는데, 상련의 끝 글자는 측성, 하련의 끝 글자는 평성으로 되어 있다. 소위 仄起平落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것이 바로 중국의 楹聯이다.²⁾ ‘柱’와 ‘楹’이 같은 뜻일 뿐만 아니라 주련과 영련은 그 쓰임새도 비슷해서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의 柱聯과 중국의 楹聯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것은 이 창덕궁 낙선재의 사진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바로 우리나라의 어느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주련처럼 기둥마다 글귀가 써져 있는 나무판이 붙어 있지만, 이 글귀들은 모두 중국 사람들이 쓴 對聯³⁾이라는 것이다.

위 사진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山隨水曲趣無盡(산수수곡취무진: 산은 물을 따라 굽이치니 흥취가 다함이 없고)”라는 구절이고, 그 왼쪽에 있는 “竹與蘭期坐有情(죽여란기좌유정: 대나무가 난초와 기약하니 자리에는 정감이 있네)”이라는 구절인데, 이 두 구가 짝을 이루는 대련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이 왼쪽 목판의 왼쪽 아래에 새겨져 있는 ‘樹琴 英和’라는 네 글자가 이 대련이 만주족 출신으로 淸나라 대신이었던 索綽絡·英和(1771年~1840年)의

2) 한국의 주련과 중국의 영련은 명칭과 외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문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이 닮은 것을 제시하였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외형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주련과 달리 중국의 영련은 건물 입구의 양 기둥에 서로 짝을 이루는 글귀 중의 한 구절씩 중으로 쓰는 것이다.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 기둥의 것이 상련 또는 출구이고, 왼쪽 것이 하련 또는 대구다.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이나 속성을 두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기둥에 횡으로 쓰는데, 이것을 橫批 또는 橫額이라고 한다. 이 횡비는 내용상으로 두 구로 이루어진 楹聯의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의 역할을 한다.

3) 중국에서는 楹聯과 對聯을 같은 뜻의 다른 말로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물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楹聯이라고 하지만, 건축물과는 별개로 문자적 내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을 對聯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다.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樹琴은 이 사람의 字다.

그런데 ‘竹與蘭期坐有情’의 왼쪽에 있는 목판의 글귀 “藝林博綜乃逢原(예림박종내봉원:예술계의 성취를 널리 종합하여 근원을 만난다.)”의 끝 글자 ‘原’이 이상하다. 순서대로 대련을 붙이면 仄起平落의 원칙에 따라서 끝 글자가 측성인 구절이 와야 되는데, 평성으로 끝나는 구절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下聯이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上聯은 그 뒤의 실내 쪽 기둥에 붙어 있는 “經學精研無嗜異(경학정연무기이:경향을 정밀하게 연구하되 기이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라는 구절이다.⁴⁾ 짝을 이루는 두 구가 공간을 달리하여 붙어 있는 기이한 현상이다. 있는 기둥마다 모두 글귀를 붙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순서가 결정된 모양이다. 중국 사람이 지은 대련은 중국식으로 하면 한 편 한 편이 다 楹聯이 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간을 장식하는 주련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楹聯의 기본 규칙인 대칭적 구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중국의 영련을 한국적 주련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하이꾸(俳句)

山路來て何やらゆかしすみれ草 산길 오다가 무언가 했구나 어여쁜 제비꽃
よく見れば 薺花咲く垣根かな 잘 살펴보니 냉이꽃 피어 있는 울타리구나
- 마쓰오 바쇼(松尾芭蕉:1644-1694)

落花枝に歸ると見れば胡蝶かな 떨어진 꽃잎 가지로 돌아간다 했더니 나비로구나 - 아라키다 모리타케(荒木田守武:1473-1549)

4) 이 대련의 하련이 써어 있는 목판의 좌측 하단에는 ‘翁方綱’이라는 작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용방강의 金石學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肌理說이라는 시론을 제창하여 유명한데, 秋史 金正喜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